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인지적 유연성의 상호작용 효과*

송보라 이기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 내부를 향한 지속적인 생각의 결과인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성별과 인지적 유연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먼저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이원상호작용을 확인한 결과, 사적 자의식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성별의 조절 효과를 예측한 가설1은 기각되었다. 가설 2에서는 사적 자의식과 성별 및 인지적 유연성의 상호작용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세 예측변인의 삼원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가 유의미했으므로 삼원상호작용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통한 단순상호작용효과 및 단순단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는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은 때 자기개념 명확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의 함의와 시사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적 자의식, 자기개념 명확성, 성별, 인지적 유연성

큐브를 열심히 돌려 거의 다 맞춰갈 무렵 어느 한 조각 때문에 이미 맞춰진 면을 다시 흐트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자기 내부의 큐브를 한 조각씩 맞춰가다 보면 한 면이 완성될 때 마다 나의 모습을 알아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어느 한 조각이 들어맞지 않을 경우 잘 알고 있던 내 모습마저도 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연 자기 안의 큐브를 잘 맞춰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관심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자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 외모 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자기-자각 혹은 자기 초점화 주의라 말하며 자기-자각 상태를 일종의 성향으로 가지는 것을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라고 한다 (Ingram, 1990). 즉 성향적으로 어떤 사람은 줄곧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몰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바로 자의식에서의 개인차에서 비롯된다(허정훈, 2000). Fenigstein, Scheier

* 본 연구는 BK21 지원사업인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에 의해 수행됨.

* 교신저자 : 이기학,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과 Buss(1975)는 자의식을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는 사람의 지속적인 경향성으로 정의하였고, 자의식을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불안 등의 세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 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자기의 측면들에 주목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로,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불안은 주로 공적 자의식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 초점화 주의에서 발전된 자의식의 원 개념에 보다 근접한 것은 사적 자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자의식 연구도 이러한 사적 자의식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왔다(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적 자의식은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의 상충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적 자의식이 우울증(Smith & Greenberg, 1981), 일반화된 불안(Hope & Heimberg, 1985)과 정적상관이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과 사적 자의식의 상관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는 상당히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고(김은정, 1993),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과 불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김영아 등, 1999). 이러한 결과는 사적 자의식이 상황, 조건에 따라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김영아 등, 1999).

따라서 사적 자의식이 어느 수준까지는 적응적 역할을 한다고 볼 때(조아라, 김영미, 2000) 사적 자의식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긍정적 동기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중첩되는 면이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96). 자기개념 명확성은 정서의 균형, 만족감, 일관성, 삶의 목적과 모두 정적 상관을 이루고 개인의 정신 상태나 적응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Monica & Greg, 2001). 이러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적 자의식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명확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즉,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부적 상관을 이룬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ey, & Lehman, 1996), 대상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 사적 자의식이 적절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유지에 수반되는 유익한 과정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Csank & Conway, 2004).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은 자기개념에 있어서 자신이 바라는 특성을 얻고자하는 경향(Campbell & Lavalley, 1993)이 있으므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사적 자의식을 통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성별을 예측해볼 수 있다. Csank와 Conway(2004)의 연구에서 남녀를 나눠 사적자의식을 높이는 상황에 처하게 한 뒤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사적 자의식을 높이기 전, 후에 측정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차이는 남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자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사적 자의식이 높을(Alanazi, 2001; Franzoi & Davis, 1985) 뿐만 아니라 자기 초점화된 생각과 분석을 통해 명확한 자기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더욱 크다는 연구 결과(Belenky, Clinchy, Goldberger, & Tarule, 1986)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사적 자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자의 자기개념 명확성의 변화만 유의미했으므로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성차가 존재할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Csank & Conway, 2004)의 실험 결과를 통해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조절하는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이 다른 두 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적 자의식을 높인 뒤 자기개념 명확성을 다시 측정했다. 그 결과, 각 집단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변화되는 양상이 상반되었고 변화의 크기는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여성이 자기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수반되는 어떤 요인이 자기 내부로의 초점화와 상

호작용을 일으켰을 때 자기개념 명확화에 영향을 미침을 추론할 수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사람들마다 인지적 유연성에서 차이가 났으며 그 정도는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김완일, 2008). Thurston과 Runco(1999)는 인지적 유연성을 변화에 대한 능력으로 정의했으며, Martin과 Rubin(1994)은 인지적 유연성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상황에 적응하고 순응하고자 하는 자발성, 유연함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 등으로 보았다.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 중 자기개념 명확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자기개념 명확성과 인지적 유연성은 모두 자기 내부의 지식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경험적 인지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수현, 2005; 김완일, 2008). 그러나 인지적 유연성이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Martin & Rubin, 1995)이라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라는 면에서 독립적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울러,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판단 시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각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Froming & Caver, 1981), 개인의 경험적 지식 구조인 인지적 유연성은 자기속고 성장과도 독립적 차원에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사적 자의식은 자신을 민감하게 지각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의 일종으로 기능하기도 하므로(최정아, 1996), 적응하려는 개인의 자발성인 인지적 유연성(Martin & Rubin, 1995)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자기정보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Paulhus & Martin, 1988), 사적 자의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잡하고 모호한 자기 측면 자체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조직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아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의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적 자의식과 성별의 이원상호

작용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바는, 남자의 경우 사적 자의식의 수준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자의 경우 사적 자의식이 높으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남녀가 자신의 특성을 비취봤을 때 여자가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고민과 설명이 늘어나고 (Belenky & Clinchy, 1986), 남성성이 강할수록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덜 복잡하게 여긴다(Conway, 2000)는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예측이다.

두 번째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사적 자의식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사적 자의식, 성별, 인지적 유연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계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자기개념들을 외부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여자와 달리 남자는 독립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기개념들을 외부와 분리시켜 해석한다(Susan & Laura, 1997). 그리고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은 기능적이고 도구적 특성(예, 독립적이다)을 갖는 반면에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고 친화적 특성을 갖는다(정진경, 1987; Eagly & Steffan, 1984). 따라서 사적 자의식이 높아져 다양하고 복잡한 자기개념들이 형성될 때, 여자는 자기 내부의 지속적 속성보다는 순간마다 변할 수 있는 관계속의 자신을 숙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Cross et al., 2000) 인지적 유연성이 높아져도 자기개념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사적 자의식이 높더라도 자기개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 남자가 자기 정보를 적응적이며 유연하게 받아들일 경우 자기개념을 명료히 인식하는 정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즉, 사적 자의식이 높을 때 인지적 유연성의 영향을 받은 자기개념 명확성의 변화 정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클 것이라고 본다.

그 자체로는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는 사적 자의식이 자기에 대한 신념을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면 개인의 적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자기 이해를 통한 자아 증진의 과정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

념 명확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별과 인지적 유연성이며, 그 양상을 살펴보면 목적이 있다. 사적 자의식×성별의 이원상호작용과 사적 자의식×성별×인지적 유연성의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과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2. 사적 자의식과 성별 및 인지적 유연성의 상호작용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는 인지적 유연성에 따라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 차이가 날 것이다.

2-2 사적 자의식이 높은 여자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인지적 유연성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학과연구심의위원회(DRC)의 승인을 받아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지방 소재 4개 대학의 대학생 총 43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임한 7명의 학생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42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208명(48.9%), 여학생이 217명(51.1%)이었고, 1학년이 153명(36%), 2학년이 134명(31.5%), 3학년이 55명(13%), 4학년이 83명(19.5%)이었다. 연령 분포는 20세 이하가 19%, 21-22세가 26%, 23-25세가 34%, 26세 이상이 21%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사적 자의식 측정도구

Fenigstein 등(1975)이 개발하고 이주일(1998)이 번안한 자의식 척도인 Self Consciousness Scale(SCS)의 23문항 중 사적 자의식 문항 10개만을 골라서 사적 자의식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사적 자의식을 묻는 문항으로는 “항상 나 자신을 알고 노력한다.” “내 기분의 변화에 민감하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 예를 들어 태도, 감정,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측면에 주목하는 성향을 나타내어 사적 자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경하(2007)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80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측정도구

자기개념에 대한 확신 정도, 내적 일관성, 안정성들을 평가하기 위해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Self-Concept Clarity(SCC)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본 연구자가 영어로 된 원래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세 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문항의 유연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번역되어진 척도를 두 명의 이중 언어자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 하였으며, 이 역번역된 문항을 원래 척도와 비교하여 문항의 의미가 같은지를 교차 확인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각 문항의 예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 실제의 내가 다른 것 같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등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하는 정도와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Campbell(1996) 등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유연성 측정도구

인지적 유연성의 측정을 위해 홍숙지(2005)가 개발한 개인 유연성 척도 Individual Flexibility Scale(IFS)의 39 문항 중 인지적 유연성 차원에 해당하는 18문항만을 묶어 인지적 유연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11개의 ‘다양성 사고’ 문항과,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회피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7개의 ‘복잡성 선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 사고에 해

당하는 문항에는 “나는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는 편이다.” 등이 있으며, 복잡성 선호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나는 수학문제를 풀 때,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만 푸는 편이다.”(역채점)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복잡한 상황에 흥미를 느끼며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사고를 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어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숙지(200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다양성 사고에서 .86, 복잡성 선호에서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양성 사고와 복잡성 선호를 합하여 만든 인지적 유연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절차 및 자료 분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구한 뒤,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본 뒤,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 및 인지적 유연성이 성별, 나이, 학년,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이원상호작용 및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보려는 연구 목적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인으로서 나이와 학교를 포함시켰고, 2단계에는 주효과를, 3단계에는 이원상호작용을 포함시켰으며, 4단계에는 삼원상호작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체 모형이 유의하고,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p < .05$)한 것들만 해석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우 구체적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고, 저 집단으로 나눈 각 변인들에 대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단순상호작용효과 및 단순단순효과가 유의한 경우의 결과만 해석하였다.

결 과

사적 자의식, 성별,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관관계

측정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적 자의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r = -.29, p < .05$), 인지적 유연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13, p < .05$), 사적 자의식과 인지적 유연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r = .29, p < .05$) 세 측정 변인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별은 세 변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 및 인지적 유연성이 성별, 나이, 학년,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적 자의식, $F(1,423) = .39, p = n.s.$, 과 인지적 유연성, $F(1,423) = 1.14, p = n.s.$,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 $F(1,423) = .00, p = n.s.$, 에서 모두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나이 차이 역시 사적 자의식, $F(3,406) = .90, p = n.s.$, 과 인지적 유연성, $F(3,406) = .38, p = n.s.$,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 $F(3,406) = 1.07, p = n.s.$, 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적 자의식, $F(3,406) = .16, p = n.s.$, 과 인지적 유연성, $F(3,406) = .03, p = n.s.$,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 $F(3,406) = 2.22, p = n.s.$, 에서 모두 학년 차이가 유의하지

표 1. 사적 자의식,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 성별의 상관계수

	1. 사적 자의식	2. 인지적 유연성	3. 자기개념 명확성	4. 성별
1	1			
2	.29**	1		
3	-.29**	.13**	1	
4	.03	.00	-.052	1
M	36.56	61.16	34.92	1.51
SD	5.27	8.69	6.63	0.50

성별 1=남자, 2=여자
** $p < .01$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적 자의식, $F(2,406)=.24, p=n.s.$, 과 인지적 유연성, $F(2,406)=.37, p=n.s.$,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 $F(2,406)=.25, p=n.s.$, 에서 모두 학교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적 자의식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사적 자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과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개념 명확성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사적 자의식, 성별, 인지적 유연성을 예측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사적 자의식과 성별의 이원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표 2). 이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든 예언변인에 대해 중앙화(centering)를 한 뒤 ‘독립변인×조절변인’으로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투입하였고,

예측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으로 나이와 학교를 투입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변인들로 자기개념 명확성의 18.2%가 설명되었다. 통제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효과를 보면,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았고($\beta=-.35, p<.001$),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게 나타났다($\beta=.27, p<.001$). 그리고 이원상호작용을 첨가한 3단계에서 설명량의 증가분이 유의하지 않았고($\Delta R^2=.01, p=n.s.$), 따라서 예상한 사적 자의식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설1)도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원상호작용을 첨가한 4단계에서 설명량의 증가분이 유의하였고($\Delta R^2=.02, p<.01$), 사적 자의식×성별×인지적 유연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beta=-.15, p<.01$).

표 2. 사적 자의식, 성별, 인지적 유연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단계	변인	B	SE B	β	R^2	ΔR^2	ΔF
1	나이	.59	.51	.06	.01	.01	2.42
	학교	.86	.72	.06			
2	나이	.70	.47	.07	.15	.14	22.88***
	학교	1.02	.70	.08			
	사적자의식(A)	-.44	.06	-.35***			
	성별(B)	.32	.60	.02			
	인지적유연성(C)	.20	.04	.27***			
3	나이	.64	.47	.07	.16	.01	2.14
	학교	1.52	.73	.11			
	A	-.45	.06	-.36***			
	B	.31	.60	.02			
	C	.21	.04	.28***			
	A × B	.01	.12	.00			
	B × C	-.18	.08	-.12			
A × C	-.00	.01	-.02				
4	나이	.64	.47	.07	.18	.02	9.66**
	학교	1.36	.72	.10			
	A	-.46	.06	-.36***			
	B	.83	.61	.06			
	C	.20	.04	.26***			
	A × B	.00	.12	.00			
	B × C	-.16	.08	-.10			
	A × C	-.00	.01	-.01			
	A × B × C	-.04	.01	-.15**			

A : 사적 자의식, B : 성별 C : 인지적 유연성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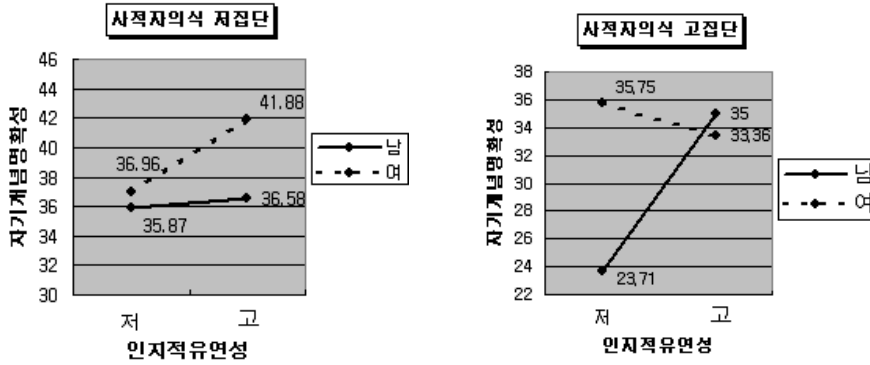


그림 1.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사적 자의식, 성별, 인지적 유연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양상

사적 자의식×성별×인지적 유연성의 효과가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사적 자의식과 성별 및 인지적 유연성의 삼원상호작용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2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다(표 2). 따라서 이 삼원상호작용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적 자의식이 높은 경우 성별×인지적 유연성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F(1,74)=11.98, \eta^2=.14, p<.01$. 반면, 사적 자의식이 낮은 집단에서의 성별 × 인지적 유연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74)=1.75, \eta^2=.03, p=n.s.$ 따라서 단순상호작용 분석에 대한 단순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일 경우에는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자기개념 명확성에 있어서 차이가 유의하였다, $F(1,41)=12.82, \eta^2=.24, p<.01$. 반면, 사적 자의식이 높은 여자의 경우 인지적 유연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F(1,41)=.63, \eta^2=.02, p<n.s.$ 결국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의 경우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이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보였다(각각 $M=35.75, M=23.71$). 따라서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는 인지적 유연성에 따라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2-1과 사적 자의식이 높은 여자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인지적 유연성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2-2는 지지되었다(그림 1).

논 의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은 자신을 좀 더 명확히 알아가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답을 얻지 못해 정체감의 혼란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내부를 향한 지속적인 생각의 결과를 명료한 자기 이해로 이끄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성별과 인지적 유연성의 영향력을 밝힌 뒤,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먼저 사적 자의식이 높아질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은 낮아지는 부적 관계를 발견하였다. 사적 자의식이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함인 긍정적 동기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결과적으로 높은 사적 자의식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낮추는 확인하였다.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우울, 불안, 부정적 정서 등의 심리상태를 예측하므로(Campbell, et al., 1996),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적 자의식이 높을 경우 부정적 심리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이 지지되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가설1을 살펴본 결과, 사적 자의식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성별의 조절 작용을 예상했던 가설1은 기각되었다. 즉, 내부로의 초점을 통해 자기 모습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아, 남녀에 관계없이 사적 자의식이 높아질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은 낮아지는 부적 관계가 성립됨을 확

인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적 자의식이 높고 명확한 자기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더욱 크다 하더라도(Alanazi, 2001; Belenky, Clinchy, Goldberger, & Tarule, 1986; Franzoi & Davis, 1985), 결과적으로 사적 자의식으로 인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저하되는 과정은 남자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적 자의식과 성별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없으나, 인지적 유연성과 결합될 경우 유의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하므로 삼원상호작용을 예측한 가설2가 지지되었다.

따라서 삼원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적 자의식이 높을 경우에 성별과 인지적 유연성의 수준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사적 자의식이 높은 집단을 남녀로 나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집단에서만 인지적 유연성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여 가설2-1과 2-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인지적으로 유연할 때 사적 자의식으로 인해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자기개념을 보다 명료히 확립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남자는 사적 자의식이 높아도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 경우 자기개념 명확성을 유지하지만, 인지적 유연성이 낮을 경우에는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크게 저하된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스트레스 및 우울과 부적 상관(Treadgold, 1999)을 보이므로 이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연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을 잘하고(Paulhus & Martin, 1988), 자신감도 높다고 보고한 연구(Martin & Rubin, 1994)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지적으로 유연한 남자는 사적 자의식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인지적 유연성이 낮을 때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여자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인지적 유연성의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적 자의식 저, 고 집단 모두에서 남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들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여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인지적 유연성이 낮을 때에 유의하게 떨어지는 점에 대한 보다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자기숙고 경향이 높은 남자에게 있어서 인지적 유연성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는 자기이해와 관련된 연구영역에 보탬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사적 자의식이 높을 경우 자기개념 명확성은 떨어지게 되는데, 여자는 본 연구의 조절 변인이었던 인지적 유연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 명확성을 유지($M=33.83$, $SD=5.49$)하는 반면, 남자는 인지적 유연성이 낮을 때에 유의한 감소($M=33.79$, $SD=9.21$)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심리적 건강에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 효과성으로 논란이 많은 사적 자의식이 남자에 있어서는 인지적 유연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여 자기이해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적 자의식이 자기이해에 유용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Sedikides & Skowronski, 1995; Erikson, 1980; Mead, 1934). 나아가 자수를 관찰하고 의식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개입을 한다(Mahoney, 1991; Prochaska, DiClemente, & Norcross, 1992)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적 자의식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둘째,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의 경우 인지적 유연성이 낮으면, 여자와 달리, 자기 혼란 경험이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내부로 초점화 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경향이 높은 남자가 자기개념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유연성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인지적 유연성은 성격 5요인 중 개방성, 외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창의성 중 언어 유창성, 언어독창성, 언어유통성, 도형정교성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홍숙지, 2005). 따라서,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된 이러한 성향이 사적 자의식이 높은 남자가 명확한 자기 이해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사적 자의식 구인

- 의 두 가지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8 (1), 69-78.
- 김완일 (2008). 자기복잡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15-734.
- 김은정 (1993). 우울증상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 변인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문경하 (2007).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구, 이해경, 김명소 (2003). 한국여성의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8(2), 1-19.
-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 여성학, 3권, 132-160.
- 조아라, 김영미 (2000). 자의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 MMPI 프로파일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2), 319-330.
-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허정훈 (2000). 자의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숙지 (2005). 개인 유연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anazi, F. M. (2001). The revised Self-consciousness Scale : An assessment of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Saudi Arabia.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9, 763-776.
-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1072.
- Belenky, M. F., Clinchy, B. M., Goldberger, N. R., & Tarule, J. M. (1986). *Women's ways of knowing : The development of self, voice, and mind*. New York : Basic Books.
- Bigler, M., & Greg, J.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96-415.
- Blo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E., & Erbaugh, J. K.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Campbell, J. D., & Di Paula, A.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Gordon & P. L. Hewitt(Eds.), *Perfectionism :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181-198).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mpbell, J. D., & Lavalley, L. F. (1993). Who am I?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3-20). New York : Plenum.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y,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onway, M. (2000). On sex roles and representations of emotional experience : Masculinity, femininity, and emotional awareness. *Sex Roles*, 43, 687-698.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 of the self :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sank, P. A., & Conway, M. (2000). *The relations between self-clarity, self-esteem, and defensiveness in a sample of Concordia University undergraduates*. Unpublished manuscript.
- Csank, A. R., & Conway, M. (2004). Engaging in Self-reflection changes Self-concept clarity : On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and low-and high-clarity individuals. *Sex Roles*, 50, 469-480.
- Eagly, A. H., & Steffan, V. J. (1984). Gender stereotypes

- of nationalities applied to both women 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51-462.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ranzoi, S. L., & Davis, M. H. (1985). Adolescent self-disclosure and loneliness :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arental infl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768-780.
- Froming, W. J., & Caver, C. S. (1981). Divergent influences of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 a compliance paradig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159-171.
- Hope, D. A., & Heimberg, R. G. (198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in a social phobic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Huston*.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 Mahoney, M. J. (1991). *Human change process :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psychotherapy*. New York : Basic Books.
- Martin, M. M., & Rubin, R. B. (1994). Development of a communication flexibility scale.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59, 171-178.
- Martin, M. M., & Rubin, R. B. (1995). A new measure of cognitive flexibility. *Psychological Reports*, 76, 623-626.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es, J., & Shevlin, M. (2001). *Applying regression and correlation : A guid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Sage publication Inc.
- Paulhus, D. L., & Martin, C. L. (1988). Functional flexibility : A new conception of interpersonal flex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8-101.
- Prochaska, J. O., DiClemente, C. C., & Norcross, J. C. (1992). In search of how people change : Applications to addictive behaviors. *American Psychologist*, 47, 1102-1114.
- Treadgold, R. (1999). Transcendent Vocation :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depression,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1), 81-105.
- Sedikides, C., & Skowronski, J. (1995). On the source of self-knowledge : The perceived primacy of self-refl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244-270.
- Smith, T. W., & Greenberg, J. (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 323-331.
- Thurston, B. J., & Runco, M. A. (1999). *Flexibility*. In Runco, M. A., & Pritzker, S. R.(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1, Academic Press, San Diego, CA, 729-732.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elf-Concept Clarity : The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and Cognitive Flexibility

Bo-ra Song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rivate self-consciousness predicted self-concept clarity. Gender and cognitive flexibility were hypothesized as factors that moderate this proces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 interaction effect of private gender \times cognitive flex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elf-concept clarity. Incontrast to the hypothesis,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times gender. ANOVA analysis revealed that males with strong private self-consciousness showed an increase in self-concept clarity when cognitive flexibility was high.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the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Private self-consciousness; Self-concept clarity; Gender; Cognitive flexibility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12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2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26일